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5】

2011. 8. 18.

최근 주요 개도국 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국가별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2



- 2011년 8월 들어 미국의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주가 급락, 환율 불안 현상이 지속됨. 8월 5일 S&P가 미국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요 신흥지역 개도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터키, 브라질 및 멕시코)의 최근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함.

I. 검토 배경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2011년 8월 들어 미국의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주가 급락, 환율 불안 현상 지속
 - 8월 11일 다우지수는 8월 1일 대비 8.15% 급락, 나스닥도 동 기간 중 9.18% 급락하는 등 미국의 주가급락이 세계 증시의 하락 동반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권 금융불안에서 초래되었지만 미국 및 유럽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주가 및 환율 불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
 - 종합주가지수 변동률(8.1~11): 러시아 -16.59%, 터키 -16.0%, 브라질 -8.87% 등

□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도미노 현상 우려

- 2011년 8월 5일 S&P가 미국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고,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제기되어 각국의 금융시장 불안 확대



II. 국가별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1. 중국

(1) 거시경제 동향

□ 고성장 유지, 인플레이 압력 가중

- 고정자산투자와 산업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금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9.6%를 기록
 - 하반기에는 대외수요 위축으로 성장 둔화 전망
- 가뭄, 수해 등 기상이변,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식료품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금년 7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 기록

<표 1>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14.2	9.6	9.2	10.3	9.0
재정수지/GDP	0.6	-0.4	-2.3	-1.6	-1.7
소비자물가상승률	4.8	6.0	-0.7	3.2	5.3
경상수지/GDP	10.1	9.1	5.2	5.2	3.7
외환보유액	15,344	19,533	24,259	28,759	33,163
총외채잔액/GDP	10.7	8.3	8.5	9.0	9.0

자료: EIU 및 OECD CRAM.



(2)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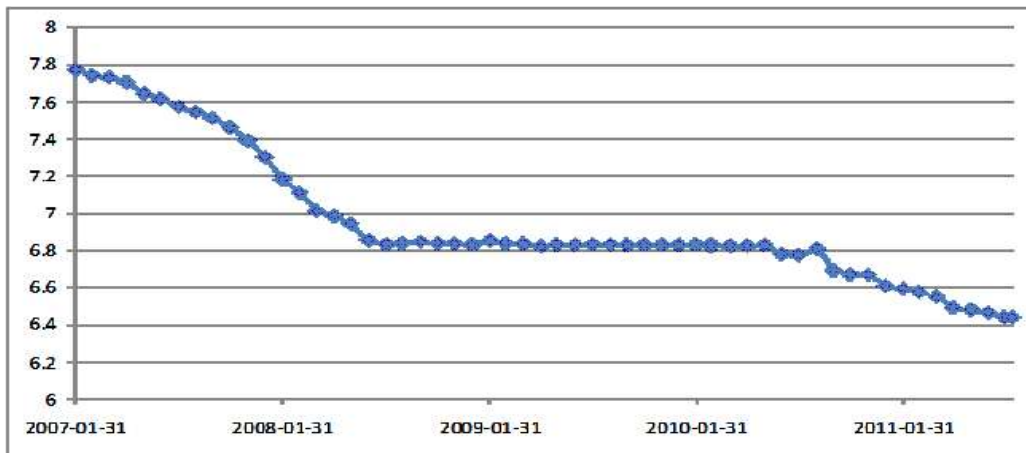
□ 긴축정책 지속 시행

- 중국 인민은행이 금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3회, 총 75bp 인상하고 기준율을 6회, 총 3%p 상향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긴축정책 시행

□ 위안화 빠르게 평가절상

- 8월 5일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위안화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8월 10일 기준 6.42위안 기록(금년 중 환율 지속 하락추세)

<그림 1> 위안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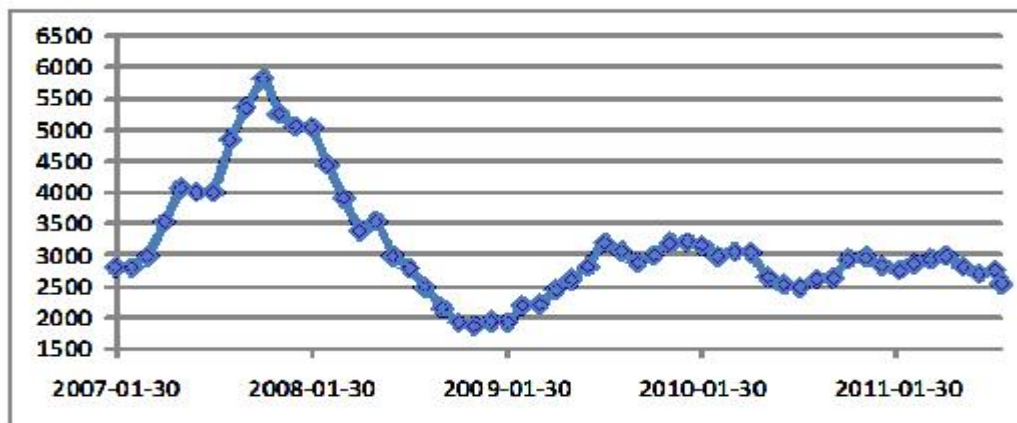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가지수 하락 추세

- 상하이종합지수는 금년 초 상승세를 보이며 4월 중 3,000포인트를 넘어선 후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 8월 10일 기준 2,549.18 포인트 기록



<그림 2> 상하이종합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물가압력과 대외변수에도 불구하고 9% 성장 전망

- 중국은 물가억제와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 추구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나, 물가억제는 위안화 절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제성장은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채권발행 허용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9%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위안화 절상으로 물가억제 대응 예상

- 중국 금융시장은 서방국가의 재정위기와 대외수요 위축 우려로 주식시장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달러화 약세 우려에 따라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전개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핫머니 유입으로 중국의 물가억제가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이나 기준을 상향조정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 잠재



2. 인도

(1) 거시경제 동향

□ 내수확대와 수출호조로 8%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률 지속

- 인도 경제는 투자 및 저축의 지속적인 증가, 노동력의 증가, 중산층의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세 유지(2010~11년 7~8% 수준)
- 2011년 1분기에 수출증가 등으로 7.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에는 소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9.3% 기록 추정

□ 인플레이 압력은 점차 완화

-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인도 중앙은행의 긴축정책과 식료품 공급 개선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1분기 9.1%, 2분기 8.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둔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인도 중앙은행은 2011년 7월 기준금리를 7.5%에서 8%로 인상

<표 2>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9.6	5.1	9.1	8.8	7.9
재정수지/GDP	-2.6	-6.0	-6.1	-5.0	-4.7
소비자물가상승률	6.4	8.4	10.9	12.0	7.2
경상수지/GDP	-0.7	-2.5	-1.9	-3.0	-3.5
외환보유액	2,739	2,540	2,747	2,871	3,404
총외채잔액/GDP	17.1	17.8	17.4	14.6	13.5

자료: EIU 및 OECD C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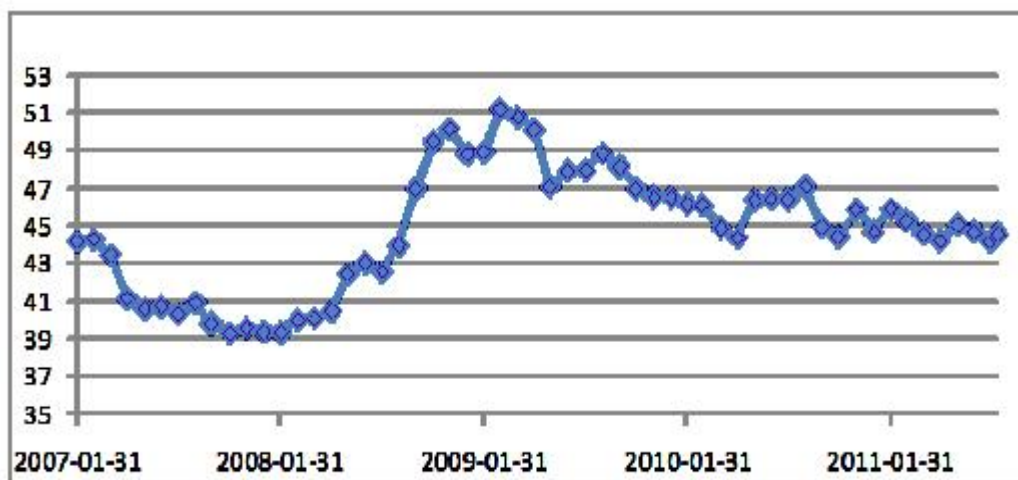


(2) 금융시장 동향

□ 루피화 가치는 비교적 강세 수준 유지

- 루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07년 10월말 39.3256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금융위기로 2009년 2월 51.1612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 말에는 44.705 기록하고 8월 11일에는 44.5839 기록(2010년 말 대비 0.3% 하락)

<그림 3> 루피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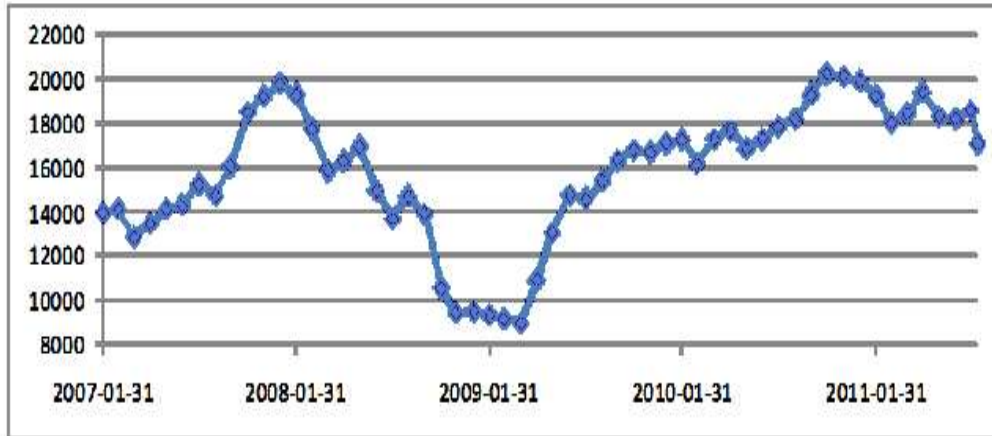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11년 8월 이후 주가 급락

- 인도 BSE Sensex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3월 8,995.45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10월말 20,249.7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등락을 보이며 2011년 6월말 18,228.94 기록
- 8월 11일 기준 Sensex 지수는 연중 최저치인 17,083.44 기록(2010년 10월 말 고점 대비 15.6% 하락)



<그림 4> BSE Sensex 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긴축정책으로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 둔화 전망

-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호조에 따라 소비 및 투자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1년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할 전망
- 인플레이 압력에 따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12%에서 2011년 7.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루피화 가치의 소폭 상승, 주가 소폭 하락 가능

- 루피화 가치는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도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에 상승세를 보이며 2010년 평균 45.7 루피에서 2015년 42루피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미국 경제가 장기간 둔화된다면 상품 수요가 감소하여 인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주가지수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인도네시아

(1) 거시경제 동향

□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인플레이 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의 확대로 금년 중 6%대의 경제성장률 기록 예상
- 식료품 가격 및 연료비 상승에 따라 2011년 1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인 7.02%를 기록했으나 긴축통화 정책으로 6월 중 전년동월 대비 5.5%로 억제

<표 3>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6.3	6.0	4.6	6.1	6.1
재정수지/GDP	-1.3	-0.1	-1.6	-0.6	-1.2
소비자물가상승률	6.3	9.9	4.8	5.1	6.0
경상수지/GDP	2.4	0.0	1.9	0.9	1.1
외환보유액	569	516	661	962	1,268
총외채잔액/GDP	31.0	28.7	29.2	21.8	18.5

자료: EIU 및 OECD C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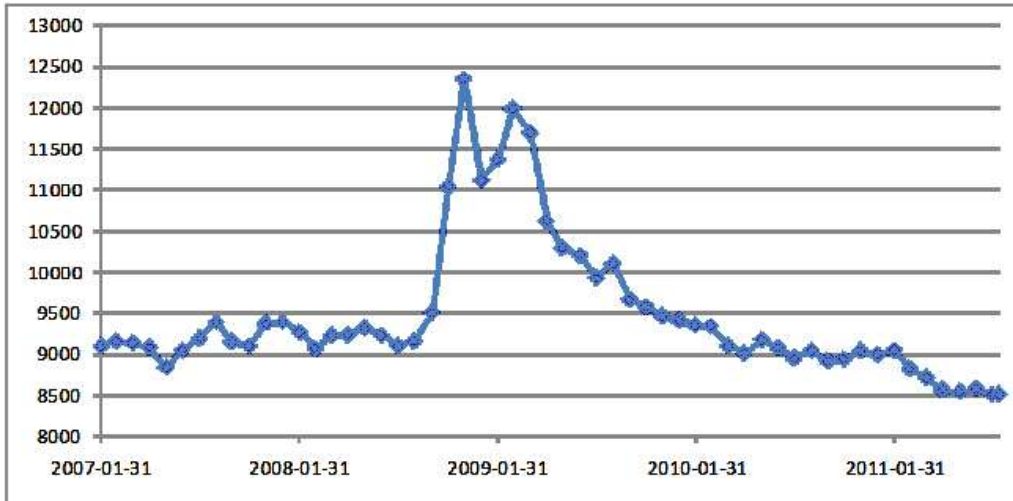
(2) 금융시장 동향

□ 루피아화 환율의 안정적 기초 형성

- 루피아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선진국의 저금리 기초와 외국인투자의 유입 증가로 2011년 1월 이후 하락세를 보여 7월 평균 환율은 1월 대비 545루피아 하락한 8,504루피아 기록
-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루피아화의 가치 하락폭이 크지 않아 8월 11일 기준 8,536루피아 기록



<그림 5> 루피아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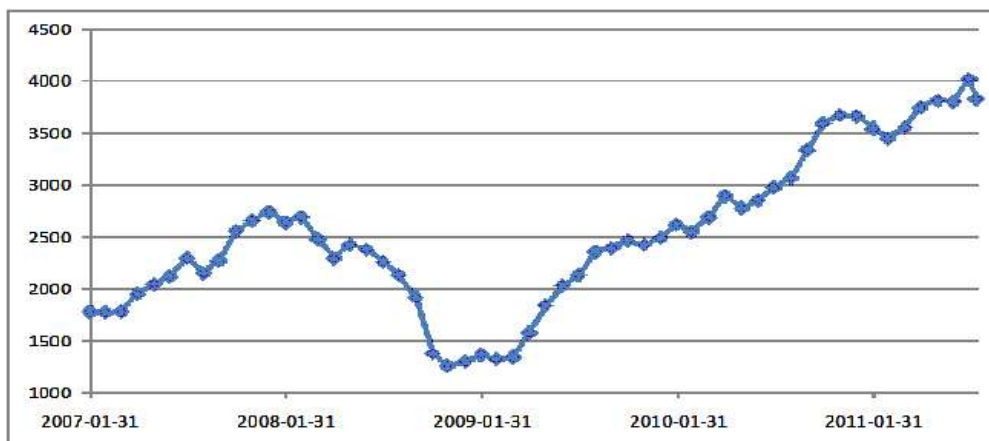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가지수의 상승세 주춤

- 인도네시아 주가지수(자카르타 종합지수: JKSE)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1년 7월 말 4,000포인트 상회
- 금년 8월 들어 대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8월 11일 기준 3,832포인트 기록

<그림 6> 자카르타 종합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경제 성장세 다소 둔화, 물가상승세 전망

- 수출 증가로 인한 수요 확대와 정부의 인프라 건설부문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6%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경기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 둔화 예상
- 외국인 투자 유입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루피아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정책 당국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물가상승세가 유지될 전망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예상

- 주요국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위축과 안전자산으로의 투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루피아화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이 예상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4. 베트남

(1) 거시경제 동향

□ 물가 불안 우려에도 경제성장세 지속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 수출 호조로 2010~11년 중 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기록 추정
 - 국제 석유가격 상승과 상품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부의 환율 평가절하로 수입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불안에 대한 우려 확대
- 2011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 대비 20.8% 상승



<표 4>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8.5	6.3	5.3	6.8	6.0
재정수지/GDP	-7.3	-5.2	-7.0	-5.5	-4.9
소비자물가상승률	8.3	23.1	7.0	9.0	18.8
경상수지/GDP	-9.8	-11.9	-6.6	-5.4	-4.4
외환보유액	237	242	168	129	163
총외채잔액/GDP	32.0	27.6	30.8	31.7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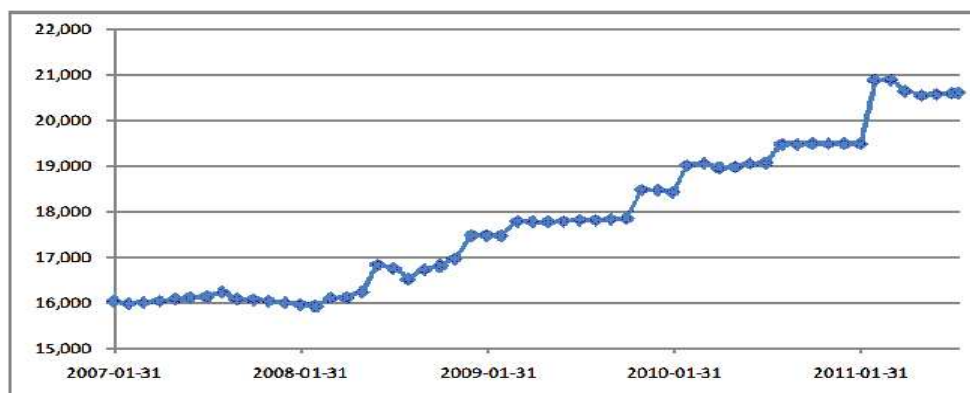
자료: EIU 및 OECD CRAM.

(2) 금융시장 동향

□ 2010년 이후 3차례의 평가절하 단행

- 베트남 동(dong)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최근의 경제불안 현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승추세(평가절하) 시현
 - 베트남중앙은행은 2010년 2월 11일에 기준환율을 17,941동에서 18,544동으로 3.36% 인상하였으며, 8월 17일에는 18,544동에서 18,932동으로 2.09% 인상
 - 2010년 말 베트남 외환보유액이 129억 달러로 급감하자 2011년 2월 11일 기준환율을 18,932동에서 20,693동으로 8.5% 추가 평가절하 시행

<그림 7> 동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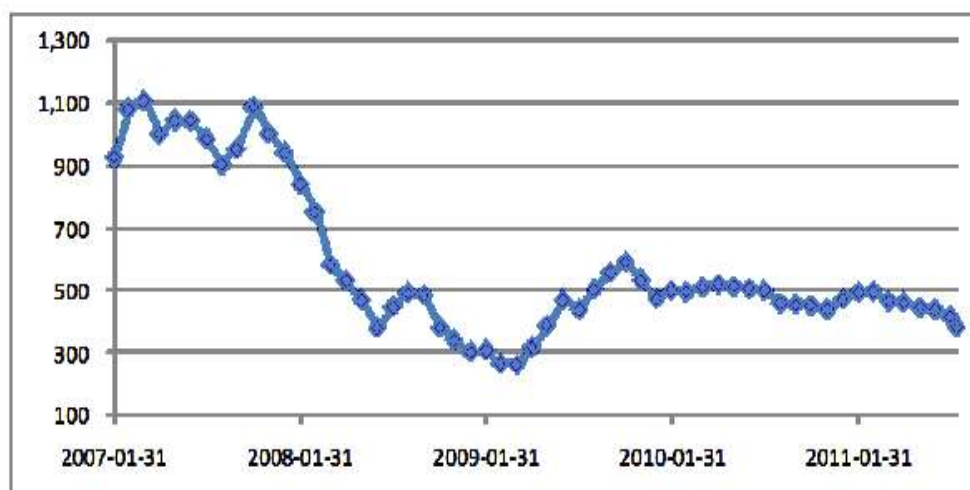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2008년 하반기 이후 주가 하락세 지속

- 베트남의 종합주가지수는 베트남이 2006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해외교포의 송금 증가 등으로 단기간에 급상승 - 2007년 5월에는 1171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며 급락세를 보였으며 금년 들어 400포인트 선에서 보합세 유지
- 최근 글로벌 주가 폭락으로 베트남 종합주가지수도 400포인트가 붕괴되었으나,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

<그림 8> 베트남 종합주가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물가불안에도 수출산업의 호조세가 경제성장 견인 전망

- 베트남 경제는 물가 상승, 외환보유액 급감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GDP의 66%에 이르는 내수 시장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6%대의 경제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인플레이 점차 완화,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 예상

- 베트남 중앙은행이 2011년 2월, 기준금리를 5차례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5%까지 상승하는 등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환율은 중장기적 상승세 예상

- 베트남 정부는 물가 안정과 수출 경쟁력 향상이라는 양면적인 정책 목표에서 환율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 경제가 확실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이전에는 당분간 환율 상승세 전망

5. 러시아

(1)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 러시아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4.2%에서 3.7%로 하향 조정
- 경기부양책에 따른 통화공급 확대,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러시아 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적으로 가중

□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외환보유액 규모 유지

- 2011년 상반기 중 경상수지는 고유가에 힘입어 57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의 521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 확대(10.6% 증가)
- 외환보유액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2009년 10월 4,000억 달러대를 회복한 이후 2010년 7월 이후 4,400억 달러 수준 이상 유지(세계 3위 수준)



<표 5>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8.5	5.2	-7.8	4.0	3.7
재정수지/GDP	5.4	4.1	-5.9	-4.0	-1.5
소비자물가상승률	9.0	14.1	11.7	6.9	8.9
경상수지/GDP	6.1	6.2	4.0	4.8	4.9
외환보유액	4,788	4,263	4,394	4,794	6,063
총외채잔액/GDP	28.3	24.2	31.2	26.6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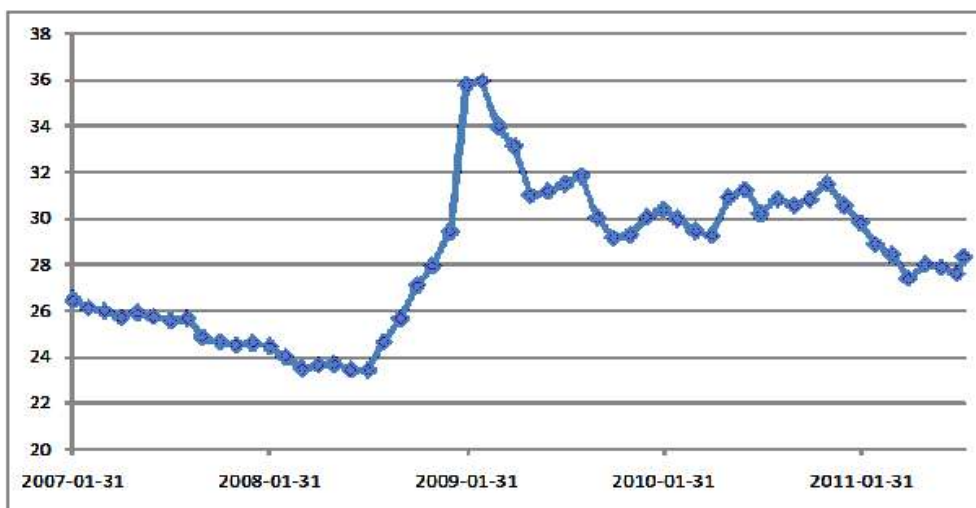
자료: EIU 및 OECD CRAM.

(2) 금융시장 동향

□ 2011년 상반기 루블화 가치는 완만한 상승세 기록

- 루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11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1월 30.1 기록, 5월 27.9로 회복되었으나 8월 들어 10일 기준 29.4까지 하락

<그림 9> 루블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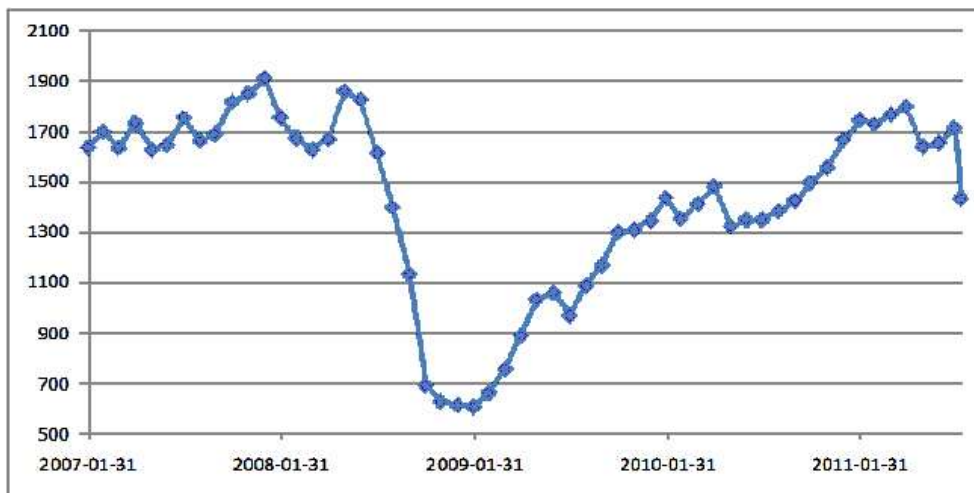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 급락

-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종합주가지수(RTSI지수)는 2011년 4월 8일 2,123.56을 기록, 연초 대비 18% 상승(2009년 저점 대비 326% 상승)
- 러시아 주식시장은 가즈프롬(Gazprom), 루코일(Lukoil), 로스네프트(Rosneft) 등 석유·가스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 차지,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재발 우려로 2011년 8월 10일 기준 1,431.41까지 급락(8월 1일 대비 17% 하락)

<그림 10> RTSI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 둔화 예상

- 미국 더블딥 우려 등에 따른 원유·가스 생산 감소, 낮은 고정자산투자율(GDP 대비 20%) 등이 경제성장세를 다소 저해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실업률 하락, 실질임금증가율 상승 등에 따른 내수 회복, 총선(2011년 12월) 및 대선(2012년 3월)에 대비한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6~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루블화 약세 전환, 주가 하락세 전망

- 2011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가 상반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본유출 지속 등으로 루블화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기침체 재발 우려와 국제유가 하락 전망에 따라 러시아 주가도 당분간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6. 터키

(1)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 지속, 재정수지 관리 가능

-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전년의 -4.7%에서 8.9%로 전환되었고 2011년에는 내수 증가, 설비투자 증대 등으로 전년의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전년보다 다소 낮은 6% 수준 예상
- 재정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유럽 재정위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박 우려

□ 경제 펀더멘털의 지속적 개선

- 터키는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대기성차관을 빈번히 지원받았는데, 2008년 5월 대기성차관 지원 종료 이후 추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



- 2009년 말 이후 터키의 국제신인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외채상환태도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

<표 6>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4.7	0.7	-4.7	8.9	6.0
재정수지/GDP	-1.6	-2.2	-6.7	-3.7	-1.5
소비자물가상승률	8.8	10.4	6.3	8.6	7.2
경상수지/GDP	-5.9	-5.8	-2.3	-6.6	-8.7
외환보유액	732	702	692	807	919
총외채잔액/GDP	36.5	36.1	40.9	39.5	41.6

자료: EIU 및 OECD C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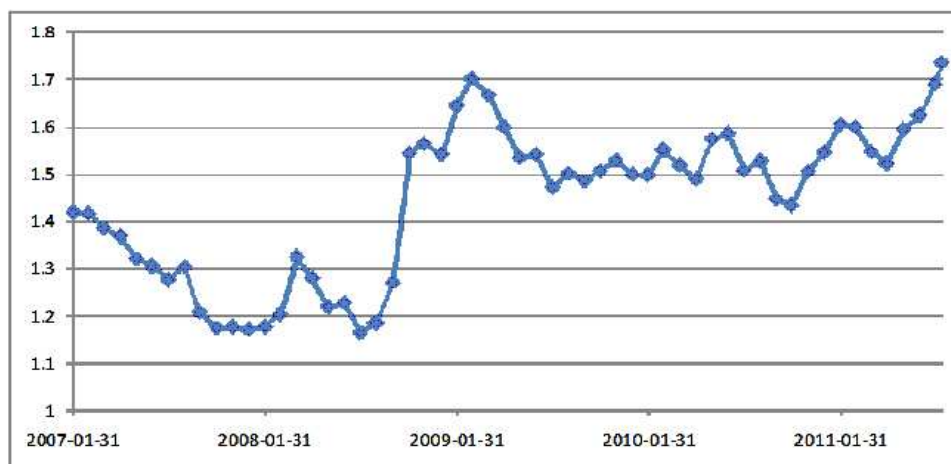
(2) 금융시장 동향

□ 외환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터키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주요 신흥투자시장이었으나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국가로 평가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008년 9월 1.24 수준에서 12월 1.54, 2009년 3월 1.71 수준으로 급등
 - 2009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어 리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011년 6월 이전에 1.5 내외 형성, 8월 들어 1.7 수준 상회



<그림 11> 리라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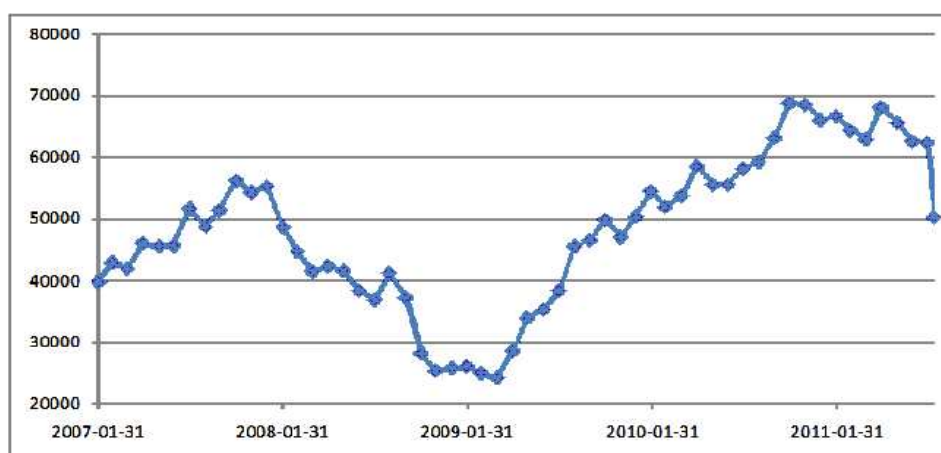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가의 급등락 추세 반복

- 터키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3월까지 24,000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0월까지 68,700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2011년 들어 5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8월 들어 50,000대로 급락

<그림 12> 터키 종합주가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상수지 악화 예상

- 터키 경제는 주요 무역상대방인 EU, 러시아 및 중동지역의 정치경제 상황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중동지역 정변 등), 유럽 재정위기로 터키의 수출시장이 위축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리라화 환율의 변동성 증가추세

- 터키 리라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10년 평균 1.50 수준에서 2011~12년 평균 1.60~1.7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1년 8월 이후 리라화 환율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7. 브라질

(1)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 압력 가중

- 브라질의 201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2%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7%대 성장률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투자여건 개선에 따른 외자유입,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 특수 등으로 성장 지속
- 내수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5% 상회 추정



<표 7> 브라질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6.1	5.2	-0.7	7.5	4.0
재정수지/GDP	-2.9	-1.9	-3.3	-2.2	-2.8
소비자물가상승률	3.6	5.7	4.9	5.0	6.6
경상수지/GDP	0.1	-1.7	-1.5	-2.3	-2.5
외환보유액	1,803	1,938	2,385	2,886	3,404
총외채잔액/GDP	17.4	15.9	17.4	16.6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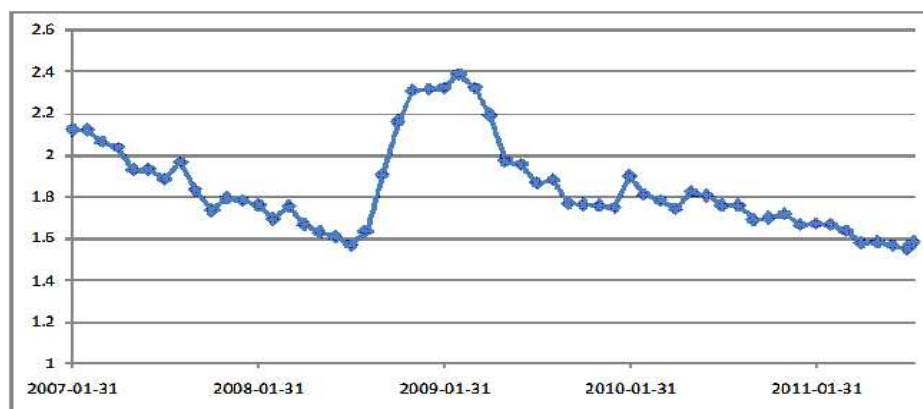
자료: EIU 및 OECD CRAM.

(2) 금융시장 동향

□ 2009년 이후 헤알화 가치의 지속적 상승추세

- 브라질의 지속적 경제성장 및 고금리 정책으로 외자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헤알화 가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 기록
- 그러나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자가 급격히 유출되면서 8월 11일 기준 헤알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58를 기록(최근 2개월 최저 수준)

<그림 13> 헤알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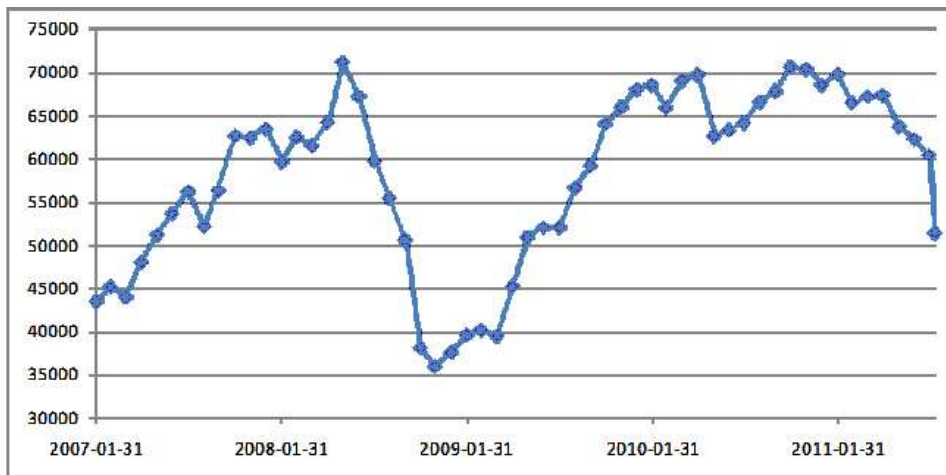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금년 8월 이후 주가지수 급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여온 상파울루 보베스파(bovespa) 지수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급락세 시현
- 금년 8월 11일 동 지수는 7월말 대비 14.95% 하락한 51,395.29p를 기록하며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그림 14> 상파울루 보베스파 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경제 성장기조 둔화 전망

-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세계경기의 동반 침체로 이어지며 최근 브라질이 유지해온 성장기조가 둔화될 전망
- 당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천명한 브라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금융시장 불안으로 환율 및 주가 변동성 증대 예상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환율 및 주가 변동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세계 신흥경제의 대표주자인 브라질 금융시장은 여타 개도국에 비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 우려

8. 멕시코

(1)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 둔화, 소비자물가 안정 추세

-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6%로, 미국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
- 최근 경기회복세 둔화와 폐소화 강세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3.4%를 기록하며 안정화 추세 시현(중앙은행 목표: 2~4%)
- 멕시코는 외환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외환보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1분기 말 외환보유액은 1,236억 달러로 사상최고치 기록

<표 8>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3.2	1.2	-6.2	5.4	4.2
재정수지/GDP	0.0	-0.1	-2.3	-2.9	-2.5
소비자물가상승률	4.0	5.1	5.3	4.2	3.5
경상수지/GDP	-0.9	-1.5	-0.7	-0.5	-1.4
외환보유액	872	953	999	1,205	1,402
총외채잔액/GDP	18.6	18.6	21.8	18.9	17.3

자료: EIU 및 OECD C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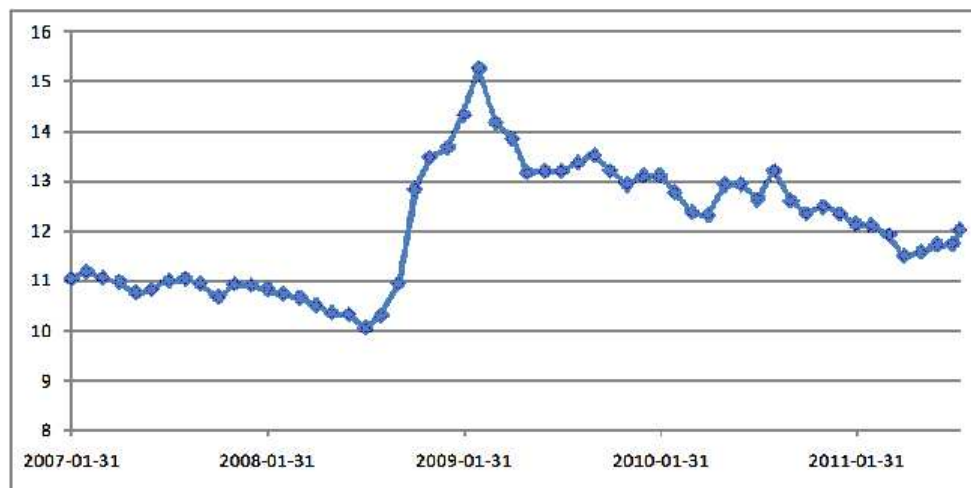


(2) 금융시장 동향

□ 2009년 이후 페소화 가치의 안정적인 수준 형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5.25까지 급등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확보 노력과 FDI유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 시현
- 그러나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페소화 환율은 금년 8월 11일 기준 12.02까지 상승하며 2011년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 기록

<그림 15> 페소화 환율 변동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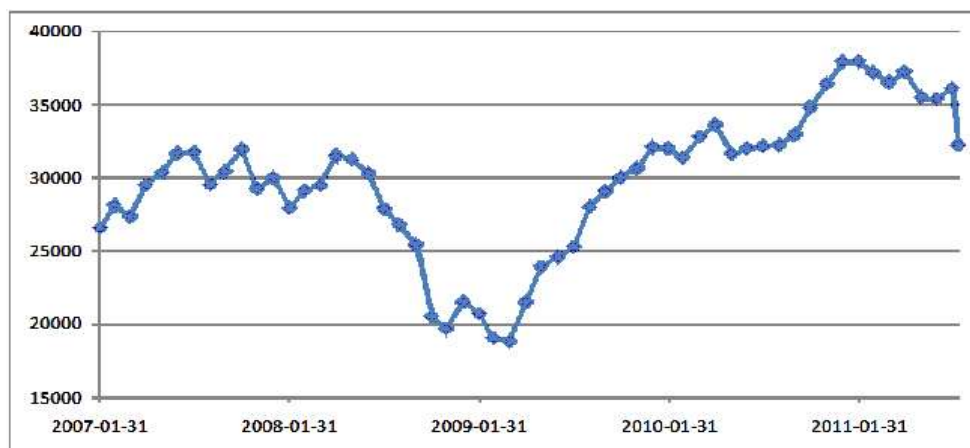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금년 8월 이후 주가지수 급락

- 2011년 3만 중후반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온 bolsa(보르사)지수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큰 폭의 하락세 기록
- 금년 8월 11일 종합주가지수는 7월말 대비 10.67% 하락한 32,219.33p를 기록하며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며 불안장세 표출



<그림 16> 볼사(Bolsa) 지수 변동추세



자료: Bloomberg.

(3)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 당초 예상치 하회 전망

-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의 특성상 미국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 우려
- 미국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급감과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로 인한 내수위축으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

-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 양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
-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대로 그 동안 멕시코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집중되었던 유동성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